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6호> 2018년 7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전세계를 뜨겁게 만들어준 러시아 축구 월드컵처럼 내년은 오이타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개최되는 럭비 월드컵으로 다시 한 번 전세계가 뜨거워지길 바라며, 오이타현도 지사를 비롯해 현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유럽과 오세아니아에서 오이타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으며, 다음달에 기사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해외에서 활약 중인 유학생, CIR, ALT OB와 현인회 여러분들의 정보도 더욱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이타현 소식>

럭비 국제시합 ‘일본 대표 vs 이탈리아 대표전’ 개최

지난 6월 9일(토) 현내에선 처음으로 럭비 국제시합 ‘일본 대표 vs 이탈리아 대표전’이 열렸습니다. 현내에서 약 2만 6천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양 팀의 박력 넘치는 플레이에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시합 결과는 34-17로 일본 대표가 승리했습니다.

이 날 시합이 열리기 전, 오이타역 서쪽 출구 광장에서는 오이타럭비페스타가 개최되었습니다. 개그맨과 스모선수, 오이타현 럭비 대사와의 토크쇼, 라인 아웃 체험 코너 등이 마련되었고 시합을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로 매우 북적였습니다. 또한 이 날,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해 셔틀버스 승차장 및 티켓 확인, 이벤트 보조 등 다양한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시합을 통해 발견한 과제점들을 개선해 내년 럭비 월드컵 개최에 앞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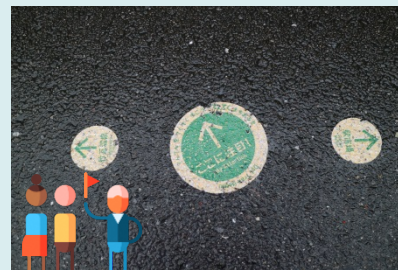
<제 26호> 2018년 7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묘반 유노사토&벳푸 텐테쿠



벳푸 8탕 중 하나이자 고지대에 위치해있는 묘반 온천에는 국가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약용 유노하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유노사토가 있습니다. 초가지붕의 오두막집에서 온천 가스를 이용해 유황의 결정체인 유노하나를 만드는 곳으로 에도시대부터 약 300년 이상 이어져내려온 전통 방식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취재 차 방문했던 이 날은 비로 인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운치있는 분위기 속에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약용 성분이 있어 각종 피부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유노하나 입욕제나 화장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 한국에서도 벳푸 여행 패키지 코스 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입니다.

유노사토 근처에 있는 오카모토야 매점은 온천 지열을 이용한 지옥찜푸딩을 처음 만든 곳이며, 마침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옥찜푸딩은 살짝 짭사름한 캐러멜과 단 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남녀노소 부담없이 먹기 좋은 맛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오카모토야 매점의 마스코트인 강아지가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벳푸만을 내려다보는 절경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벳푸 텐테쿠(別府てんてく 食べあるき・まちあるき)는 벳푸역 주변을 거닐며 먹거리도 즐기는 작은 탐방으로 도로 위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따라 벳푸역에서 벳푸역시장, 다케가와 라온천 등 총 1.8km거리의 코스를 걷게 됩니다. 오래된 상점가, 활기찬 시장, 평소엔 지나가보지 못한 골목길 등을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벳푸 텐테쿠 지도 가격은 600엔입니다. 지도에는 100엔 상당의 쿠폰이 5장 붙어있습니다.

이 쿠폰은 텐테쿠 참가점에서 물건이나 음식 등으로 교환할 수 있고, 텐테쿠 지도를 보여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온천도 있어, 지도 가격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 가이드를 신청해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이 밖에도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에 가이드와 함께 걷는 가이드 워크가 실시되고 있어 재미있는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 더 자세하고 깊은 벳푸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6호> 2018년 7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로즈가든이 있는 허브 정원 ‘오가팜’



히지에 있는 허브 정원 오가팜에 다녀왔습니다. 오가팜은 베피만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해안선과 아름다운 숲에 둘러싸여있으며, 약 2만평 크기의 정원 내에는 허브와 장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꽃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연중 아름다운 꽃들을 만날 수 있으나, 오가팜을 직접 찾은 6월 당시에는 라벤더와 수국 등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익숙한 이름의 꽃부터 준베리, 아티초크, 에키네시아 등 다소 생소한 이름의 열매와 꽃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여름이 시즌인 수국은 마침 비가 내린 뒤라 빗물을 축축히 머금어 더욱 운치있는 모습으로 산책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활짝 피는 시즌은 이미 지난 뒤였지만 아직도 로즈가든 곳곳에는 만개한 장미꽃이 남아있어 붉은 장미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비로 인해 꽃과 풀들은 더욱 싱그러워 보이고, 조용한 원내를 걷다보면 시원한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이 느껴져 마음까지 평온해졌습니다. 원내에 있는 컬처 공방에서는 오가팜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나 꽃 등을 이용해 리스 만들기 체험과 캔들 만들기 체험 등 계절에 맞춘 워크샵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방문객들이 쉬었다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안에는 레스토랑과 잡화점이 있으며, 특히 테라스석은 정원을 바라보며 식사와 차 한잔을 할 수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향긋한 라벤더 향이 물씬 풍기는 잡화점에서 허브티와 각종 잡화 등을 구경하고, 정원을 한바퀴 돌고 나오며 매표소에서 판매 중인 오가팜 오리지널 아이스크림인 카모마일 젤라또를 먹었습니다. 진한 바닐라 맛 아이스에 카모마일 향이 은은하게 느껴져 허브 정원다운 색다른 맛의 젤라또였습니다. 처음 입장할 땐 부슬부슬 내리고 있던 비도 어느새 그치고 정원을 나올 때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며, 기분도 상쾌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 ▶입 장 료 600엔 (시즌에 따라 변동 있음)
- 영업시간 9:00~17:00
- 휴 원 일 매주 화요일 (*4~5월 무휴)

